

정진석 추기경 국회 예방



19일 오전 열린 국회 가톨릭신도 조찬 미사에 참석한 정진석 추기경이 임채정 의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단 위의 사람 속웃 입어야”

조찬미사 참석 여·야 의원 품위있는 말·행동 주문

“성경 말씀에 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속웃을 입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회 조찬 미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품위있는 말과 행동을 주문하면서 소개한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0절의 말씀이다.

정 추기경은 미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단 아래에 있는 사람과는 달리 단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지 단 아래에서 다 보인다”면서 “여러분들은 단 위에 있는 분들이나 단 아래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품위있게 하며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추기경이 여야간 정쟁이 격화될 때 마다 거친 말 싸움이 오가는 정치 판에 따끔한 충고를 던진 셈이다.

정 추기경은 이어 우리 사회 각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노동계 등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게 현실”이라며 “가톨릭의 기본 교리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사회 교리’를 본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며 가톨릭 사상을 통한 갈등 해소를 강조했다.

이날 미사에는 열린우리당 문화상,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 등 여·야 의원 39명이 참석했고, 정 추기경은 미사를 마친 후 임채정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韓 金融제재 ‘빠른 종결’ 요청  
美 北계좌조사 조기마감 거부

한미, 대북 추가제재 입장차 뚜렷

정부가 미국 측에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관련된 방코델타아시아(BDA) 등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도 한국이 ‘최대한 빠른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미국은 이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여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실제 성과물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워싱턴 방문 당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주거래은행인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구했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과 관련,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 추가 제재 문제=이태식 주미대사는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관련 결의(유엔결의 1695) 이행 움직임과 관련, “우리 정부도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695호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제재조치는 안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응징조치라고 하더라도 미묘한 시점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및 2000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에 선언에 따라 해제했던 인적교류 및 교역, 투자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북한에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유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1994년 이전의 (북·미 관계) 패키지로 돌아가는 것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해 이를 공식화했다.

◇BDA 조사 종결=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BDA문제가 불법활동 단속에 관한 문제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측이 제시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BDA 관련 조치임을 언급하며 “BDA케이스는 솔직히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에 따르면 조사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 조사가 얼마나 빨리 지 모른다”고 말해 지속적인 조사방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BDA 조사문제를 6자회담 불참 명분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사가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 용어 문제 = 한국 측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측의 제안이며 구체적으로 용어에 합의한 사실은 없음을 밝혔다.

이 대사는 용어 개념에 대해 “양측이 논의 중인 것을 계속 협의·발전시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금주 중 뉴욕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서방지하상가의惡夢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시가 8년동안 덮어 두었던 ‘서방지하상가’를 다시 뜯는다. 이미 공사자 재 반입을 시작했고, 교통 통제 계획까지 세웠다. 그렇다고 놀란 것까지는 없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덜컹’할 수 있겠지만, 서방지하상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북구 풍향동 서방사거리 일대 지하 9m에 파묻혀 있는 135m의 구조물(지하상가와 지하보도)이 일부 붕괴 위험을 보이자,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둘러 하는 보수공사다. 철제 파일과 널판으로 고정해 놓은 공사 중단 구간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폐쇄하게 된다. 공사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동안. 일부 차선을 통제해 8년 전의 교통 체증이 재연될 수 있다고 한다.

IMF 한파(국제구제금융으로 인한 불경기)가 기승을 부리던 98년 겨울, 서방시장 일대는 참담했다. 97년 2월부터 시작된 서방지하상가 공사로 8차로가 파헤쳐져 연일 교통체증이 극에 달했고, 상가 매출도 60% 이상 떨어졌다. 98년 1월까지 23개월동안 130여억원을 투자한 민간사업자는 공정 31% 상태에서 상가 218동 가운데 3동만 분양하는데 그쳤다. 교통체증·주민반발 등이 겹쳐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

이 기간 동안 전문학적인 역수의 교통혼잡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했고, 상인들은 살인적인 매출 급락에 생계를 잇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일부 상인들은 지금도 ‘가게 문을 닫고 길 바닥에 나앉는 악몽(惡夢)을 꾸는다고 한다.

서방지하상가 악몽의 드라마는 관선 마지막 시장인 김문배씨가 임기 만료 직전에 ‘민자투자공모 방식’의 상가 조성에 사인한 것으로 시작했다. 민선 1기 시장인 송연중씨는 주민 찬성을 얻어 공사를 강행했고, 2기 시장 고재우씨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3대 시장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붕괴 방지 공사를 한다고는 하나,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1천260명의 지하 구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미결(未決)이다. 민선 단체장의 업적주의와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결합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민선 4기 들어서도 ‘서방지하상가’의 망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16억원을 들였다가 원금마저 날릴 위기에 남구 영산드라마센터. 건립 10년도 안돼 매각을 추진중인 동구 청소년수련관, 수요 예측 잘못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등 제2, 제3의 ‘서방지하상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jjnews@kwangju.co.kr

北, 개성 우리은행에 계좌개설 추진했었다

은행측 거부로 무산...北, 지점 폐쇄 압박하기도

북한이 작년 9월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우리은행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작년 9월14일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를 통해 구두로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12월에는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북측은 계좌 개설 이유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9월14일은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기 이를 전으로 BDA 북한 계좌 동결을 계기로 본격화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적 금융활동 이외의 용도로 계좌 개설을 원했다면 우리 금융당국이 흔히 틀어줄 수 있는 남측 은행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현재 북측은 관리들이 매일 입주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금융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제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필요

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개성지점은 승인 업무 범위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남측 종업원’으로만 한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북측의 계좌 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우리은행도 이 점을 들어 북측에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정부 당국에 업무 범위를 북측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북측은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에 ‘은행지점을 폐쇄하겠다’며 압박하는 등 한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지난 3월께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한대사 부인 ‘보석 장사’

버시바우 미대사 부인 체류자격 외 경제활동 범령위반 의혹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인 리사 버시바우 여사가 ‘대사관 가족의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석류 공예사인 버시바우 여사는 올 6월 서울 인사동에서 2주간 자신의 작품을 전시회를 갖고 전시한 작품의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으로 약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

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사 부인의 전시회 개최를 외교관 활동 밖의 영리활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enchuri' (Senchuri) featuring a man and text about business loans and services. Text includes '업소용 전문 빌·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빌·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152만원 파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할부', and '1588-8717'.

Advertisement for 'Sanmyeong' (산명안내) featuring a family and text about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Text includes '산명안내', '산명안내', '산명안내', and '산명안내'.